

전통철학의 파괴자 리처드 로티

‘탈철학의 시대’ 도래를 주장한 ‘대담한 시인’의 노래

김동식

육군사관학교 교수·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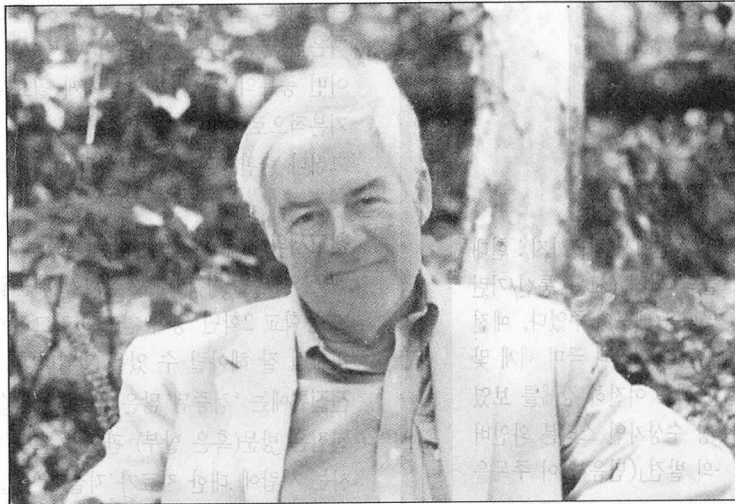
로티(Richard Rorty, 1931~)는 지난 '80년대 이후 최근 미국의 사상계에 신실용주의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며, 아마도 10여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단연 첫손가락에 꼽힐만큼 유명하고도 동시에 악명높은 철학자이다. 그는 시카고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61년부터 20년간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를 거쳐, 1982년부터 현재까지 버지니아대학교의 인문대학교수로 재직중이다. 1979년에 미국철학회 동부지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근대철학에 대한 맹렬한 비판

로티는 과학에 경도된 문화와 인식론 위주의 철학을 맹렬히 비판하고, 이제는 문예의 시대, 탈철학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1979년에 출판된 저서 「철학과 자연의 거울」에서 그는 진리의 추구를 사명으로 한 근대철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데카르트, 로크, 칸트 등의 뒤를 이은 근대철학이 자연이나 실재를 비취 줄 거울로 상정한 인간의 이성이나 정신이란 한낱 형이상학적 허구에 불과하다. 그것 없이도 인간의 심리적·정신적 행위가 설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인간의 인식은 언제나 언어적 해석을 전제로 하므로 결코 유리알처럼 투명할 수 없으며 자연이나 실재의 표상일 수도 없다.

따라서 철학이나 과학이 다른 학문분야의 기초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정초주의(定礎主義)는 빛나간 프로젝트이며, 실재론은 '진리의 추구'에 매달린 하나의 강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최근의 분석철학, 그 이전의 근대철학 더 나아가 플라톤 이래의 전통철학은 애초부터 그릇된 길을 걸어왔으며, 그래서 거부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저서로 그는 일약 미국철학계의 총아가 됨은 물론 전통철학의 파괴자로서의 악명도 함께 얻게 되었다.

정초주의적 철학의 종언을 선언한 로티는 새로운 형태의 철학을 '실용주의'에서 찾는다. 그것을 로티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였는데, 그의 주요 저술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과 자연의 거울」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통철학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비판한 1, 2부에 이어, 3부에서는 새로운 철학을 '인류의 대화' '반체계적



정초주의철학의 종언을 선언하고 신실용주의사상을 주창한 리처드 로티.

인 철학' '교화적인 철학으로서의 해석학' 등으로 그려내고 있다. 1980년을 전후해 발표된 13편의 논문들을 엮은 「실용주의의 결과」(1982)에서 새로운 철학은 '실용주의' '탈철학의 문화' '문예비평' 등의 개념을 주축으로 설명된다. 또 1989년에 출판된 「우연성, 아이러니, 그리고 연대성」은 책의 제목에 포함된 항목들을 내건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새로운 철학의 사회사상은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의 사회"에 대한 옹호론임을 밝히고 있다. 1991년에 출판된 두 권의 철학논문집 중 1권(「객관성, 상대주의, 그리고 진리」)은 주로 이미 발표된 15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그 책에서는 새로운 철학의 면모가 '자문화중심주의' '포스트모더니스트 부르주아 자유주의' 등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의 철학논문집 2권(「하이데거 등에 관한 논문집」)은 13편의 이미 발표된 논문을 주축으로 이뤄졌는데 새로운 철학이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 등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 천명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 로티의 사상은 한편으로는 퍼어스, 제임스, 듀이 등을 잇는 전통적 실용주의를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그 전통의 특정 부분을 배격하여 반정초주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변용한 '신실용주의'라 할 수 있다. 영원불변한 진리의 추구를 비판하고 유용성과 결과를 중시하며 이론과 실천의 구분을 반대한 점에서 로티는 전통적인 실용주의를 따른다. 하지만 그는 전통적 실용주의에서 '탐구의 논리'나 '과학적 방법론' 등을 정초주의적이라고 보아 배척한다. 그래서

그는 '방법론이 없는 실용주의'를 천명하며, '자문화중심의 사회적 실행'을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가자는 보수적 개혁주의의 노선을 피력한다. 이를 통해 로티가 가고자 하는 문화의 지향점은 '인류의 연대성'이며, 문학 발전의 원동력은 '참신한 메타포의 창안'과 '세상사에 잘 대처'하는 메타포의 채택이다.

그러므로 로티는 탈철학의 시대는 문예의 시대이며, 진리추구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우연성을 긍정하고 유희적으로 언어를 창조하는 아이러니스트의 시대라고 주장한다. 인간이란 곧 언어를 창조하는 존재라고 보는 그는 참신한 메타포를 창안하는 아이러니스트 즉 '대담한 시인'을 탈철학의 문화, 심리적인 문화에서의 영웅으로 설정한다. 대담한 시인은 텍스트를 과감하게 오독하는 사람, 남의 어휘를 빌려쓰는 걸 자기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며, 문화의 창조자이자 자유인이다.

이렇게 보자면 철학자 문인 비평가는 물론 수학자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등 문화적 가치의 창조자는 모두 문예비평가이자 아이러니스트에게 된다. 진부한 통상적 담론이 아니라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는 비통상의 담론, 참신한 어휘, 기발한 아이디어의 창출이 삶의 목표요 의의인 것이다. 요컨대 로티는 자문화중심주의라는 이름 아래 일단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서구문화의 뼈대를 지키되 그 토양과 테두리 내에서는 무한한 다양성의 꽃을 피우는 문화를 동경하고 있다. 결국 정초주의적인 철학이나 과학 사회이론 등이 비판 거부되어야 할 이유도 그것들이 그러한 테두리의 다양성을 왜곡시키거나 가로막기 때문이다.

범세계적 반향 불구하고 국내 소개 거의 없어

로티의 신실용주의는 미국의 전통사상이라 할 수 있는 실용주의를 토대로 하고, 한편으로는 셀라즈-비트겐슈타인-콰인-데이비슨 등을 잇는 분석철학을 나름대로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니체-하이데거-푸코-데리다 등을 잇는 대륙철학의 논의를 재해석하여, 그 세 요소를 창조적으로 종합 또는 변용시킨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그의 말마따나 '인류의 대화'를 구현한 한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탈철학의 시대'와 '문예의 시대'를 지향한 '대담한 시인'의 노래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진리의 추구를 지향하는 전통철학을 거부하는 로티와 그의 사상은 극렬한 비판을 받기도 하여 '낭만적인 허무주의' '문화적 상대주의' '현대판 소피스트' 등으로 후평되기도 한다.

로티는 지금까지 5권의 저서와 3권의 편저,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사상을 다룬 논문은 부지기수이며, 단행본은 현재까지 4권이 출판되었다. 그의 주장들은 범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켜 그의 저서 중 상당수는 일본어로 번역된 「실용주의의 결과」를 포함해서 여러 외국말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1권의 저서(필자가 쓴 '로티의 신실용주의'(철학과현실))와 김혜숙의 '로티의 후기 분석철학' 신중섭의 '로티의 네오 프래그마티즘' 엄정식의 '리처드 로티' 등 1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의 저서 중 일부 번역에 착수한 학자들의 노고가 하루빨리 결실을 보아 국내 독자들에게도 로티의 사상이 소개되고 또 논의되기를 바란다.